

2022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 요약 |

-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전년 대비 증가세가 둔화하여 3.4% 증가 전망
 - 세계 수요 회복과 수출 단가 상승으로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기저효과 및 동남아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 반도체 수급 불균형,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제약 요인으로 증가폭은 전년(25.6%) 대비 크게 둔화 예상
- 2022년 내수는 수송기기(자동차, 조선), 가전, 디스플레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군 내수는 전방산업의 견조한 성장세로 증가세가 전망되나, 수송기기와 가전, 디스플레이는 수요 위축으로 감소 전망
- 2022년 생산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하나, 증가폭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
 - 코로나19로 건조물량이 감소한 조선산업(-20.5%)과 해외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전(-4.3%)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 및 내수 확대에 증가세 전망

2022년 산업 전망 기상도

		수출	내수	수입	생산
기계 산업군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소재 산업군	철강	☹	☹	☹☹	☹
	정유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바이오헬스	☼	☼	☼	☼
IT 산업군	정보통신기기	☹	☹	☹	☹
	가전	☹	☹	☹	☹
	반도체	☹	☼	☹	☼
	디스플레이	☹	☹	☹	☹
	이차전지	☼	☼☼	☼☼	☼

- 주: 1)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1. 2022년 국내외 주요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 세계 수요는 일정 부분 회복되나, 미·중 분쟁 장기화, 코로나19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 지속

- (세계 수요 여건) 2022년 세계 주력산업 수요는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 불확실성, 중국 성장세 둔화 등의 요인으로 증가세 둔화 전망
 - 일반기계, 철강 등은 경기부양책에 기반한 인프라 투자 확대에 수요산업 성장에 따른 수요 확대가 전망되지만, 동남아 코로나19 불확실성, 중국 경기 위축 등은 수요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제품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방호·위생용품 중간재, 섬유, 바이오헬스, 비대면 전환 관련 정보통신기기(5G폰, PC, SSD 등),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세계 수요는 지속 증가
 -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기조로 자동차(전기동력차), 조선(친환경선박), 이차전지(전기차 보급 확대) 등의 수요 역시 지속적인 성장 전망
 - 그러나 가전은 코로나19 특수 교체 수요 소진,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용 OLED 확산 지연으로 증가세 축소 전망
-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미국, 유럽, 베트남 등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 시장 대부분이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겠지만, 대중국 수출은 둔화 혹은 감소 전망
 - 자동차, 일반기계, 이차전지, 정보통신기기는 미국 시장의 수요 증가세가 전망되며, 베트남 수출은 섬유, 일반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기대
 - 반면 우리 중간재 및 자본재의 주요 시장인 중국은 2022년 성장률 하락이 전망되어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일반기계, 철강, 정유, 가전 등은 전년 대비 감소 전망
 - 가전은 코로나19 특수 종료와 공급망 위기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으로 대부분 권역으로의 수출 감소 우려
 - 반도체 수요는 IT제품 생산기지인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수입 수요 증가 지속
- (글로벌 경쟁 여건의 변화) 대부분의 업종에서 중국과의 기술 및 제품 경쟁이 2022년 우리의 글로벌 경쟁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 기조 강화 역시 우리의 경쟁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은 중국의 기술력 및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으로 우리와의 경쟁이 심화
- 미·중 간 무역분쟁과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는 우리나라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섬유, 정보통신기기 등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 국제유가와 원료(나프타) 가격 인상으로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원가경쟁력은 하락 우려
-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등은 지속적으로 해외 생산이 늘어 우리 수출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한편, 전용 플랫폼 적용을 통해 상품성 및 효율성이 제고된 국산 전기차,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국산 친환경 저탄소연료추진선박(LNG, LPG 등), 플래그십 IT 제품 및 프리미엄 가전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
- 반도체는 국내 기업의 생산 기술력 및 제품 경쟁우위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여건 향상
- (해외 생산 전망) 2022년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은 세계 수요 회복과 해외 생산능력 확충으로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확대될 전망
 - 자동차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여 미국, 멕시코 등 북미 지역과 유럽, 아시아 등 중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두 자릿수 증가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코로나19 영향이 축소되고 반도체 수급 차질이 점차 완화되면서 베트남, 인도 등 해외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는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률이 상승하며 전년동기비 증가 전망
 - 이차전지는 유럽, 미국, 중국 등 해외 현지 수요 대응을 위한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해외 시장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해외 생산 증가 전망
 - 반면, 조선은 전 세계 건조량 감소, 일반기계는 중국 건설시장 위축, 가전은 국내 수요 둔화 등으로 중국 해외 공장의 생산이 부진할 전망
- (제품단가 변화) 2022년에도 원자재가 상승 및 제품 프리미엄화에 의한 제품단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상승폭은 다소 둔화 전망
 -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정보통신기기, 가전 등은 제품 고급화를 통한 제품 가격 상승 예상
 - 조선은 원자재(철강) 가격 상승과 더불어 제품의 고급화(친환경선박)로 높은 수준의 생산단가 유지 전망
 - 석유화학은 생산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확대와 유가 상승세로 단가 상승 지속 전망

- 반도체와 이차전지는 원료소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비용 상승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 반면, 2021년 급등했던 철강 가격은 중국 내수 부진과 원부자재 가격 하락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점진적 단가 안정화가 예상되며, 디스플레이는 생산능력 확대로 패널단가 추가 하락세 전망

■ **국내 수요 여건은 개선되지만, 공급능력, 경쟁 여건은 다소 악화 전망**

- (국내 수요 여건) 소비 촉진 정책에 의해 올해 교체 수요가 실현되었던 자동차, 가전 등을 제외 하면 대부분의 산업이 수요산업 수출 확대에 힘입어 국내 수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년 내수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는 내수 여건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자동차는 친환경차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교체 수요 기실현, 인플레이션 우려 등 내수 여건 악화 전망
 - 가전도 가계 소비지출은 양호하나, 코로나19 특수 및 수요 촉진 정책 종료, 제품 가격 상승 및 역기저 효과 등이 내수 확대를 제약할 전망
 - 디스플레이는 내수 비중이 기존 LCD에서 OLED로 확대되면서 관련 소재부품의 내수 성장 기대
 -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반도체 등은 수요산업 호조로 내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위드 코로나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과 5G 서비스 확산, 비대면 온라인 수요 지속 등으로 내수 여건이 개선될 전망
 -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는 조선(친환경선박), 이차전지(전기차 보급 확대) 등의 내수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공급능력 여건) 부품, 원자재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일부 산업에서 공급능력 위축 우려
 -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 지속에 따른 공급망 불안, 외자업체의 생산축소 등이 공급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조선은 2023년 건조량 증가 대응을 위해 활발한 생산활동이 전망되나, 근로시간 단축·신규 인력 유입 제한, 불안정한 노사관계 등이 공급능력을 제약
 - 일반기계도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크게 회복되었으나, 근로시간 단축 및 인건비 상승, 해상 물류 차질에 따른 납기 지연 등 부정적 요인 존재

- 철강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영향은 미미하나,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부 원자재(합금철 등)의 경우 향후 공급난 가능성 우려
- 정유와 석유화학은 생산설비 신증설 투자가 대부분 완료되어 공급능력 확대가 기대되지만, 공급망의 불확실성 증대는 전방산업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 섬유산업은 인건비 상승, 인력난 지속으로 공급능력에 부정적 영향
- 정보통신기기, 가전은 해외 생산 확대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국내 공급능력 위축 예상
- 이차전지는 원료소재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원자재 수출량 제한 등의 공급 차질은 국내 공급능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한편, 국내 반도체 생산설비는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며, 소재·장비 등 공급망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어 공급능력 확대 기대
- (국내 경쟁 여건 변화) 국내 시장에서 중국 제품 및 해외 생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로 국내 경쟁 여건은 악화되겠지만, 신제품 출시 및 국내 생산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경쟁 여건이 개선되는 측면도 존재
 - 자동차는 국내 신차 출시 지연, 가격경쟁력 약화, 수입차와의 경쟁 심화로 경쟁 여건 악화
 - 일반기계는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통해 제품경쟁력 확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원자재 및 물류비 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노동 여건 변화에 따른 생산차질 등의 문제로 전반적인 경쟁 여건 악화 전망
 - 철강, 정유, 디스플레이는 제품의 고급화 및 신제품 개발, 생산설비의 고도화를 통해 국내 경쟁력 강화에 주력
 - 정보통신기기 국내 업체들은 스마트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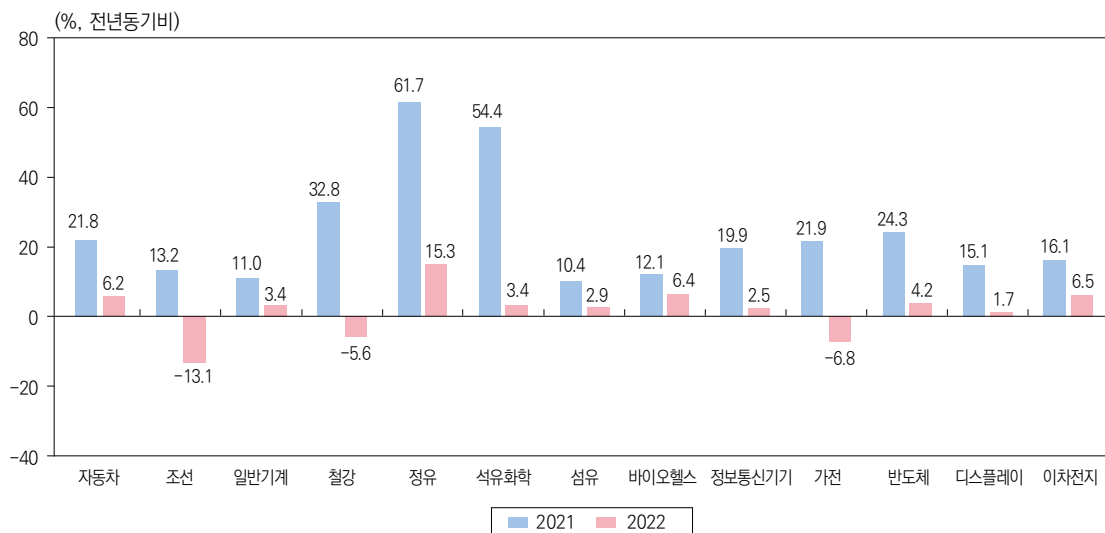
2. 2022년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 수출은 세계 수요 회복과 수출단가 상승으로 성장세가 지속되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 전망

- 2022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세계 수요 회복과 수출단가 상승으로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기저효과 및 동남아 코로나19 변이 확산, 반도체 수급 불균형,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제약 요인으로 증가폭은 전년(25.6%) 대비 둔화 전망
 - 13대 주력산업 수출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 확대
 - 13대 주력산업 수출액: (2019년) 4,264억 달러 → (2022년) 5,115억 달러
 - 13대 주력산업 수출 비중: (2019년) 78.6% → (2020년) 76.9% → (2021년) 78.6% → (2022년) 80.2%
- (기계산업군)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성장세가 지속되나 조선은 수주 부족으로 감소세로 전환,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2.2% 소폭 증가 전망
 - 자동차는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및 전동차와 고급 브랜드 차량 등 수출 단가 상승의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부품 공급망의 불안정 지속 우려로 증가폭은 6.2% 둔화 전망
 - 조선의 수출물량은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수주절벽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1% 감소 전망
 - 일반기계는 주요국의 환경규제 대응, 그린뉴딜 등 적극적 인프라 경기부양정책 지속과 수요 산업 호조로 전년에 이어 증가세가 유지되나, 중국 건설투자 규제 요인으로 3.4%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요 증대로 성장세가 지속되나, 기저효과로 전년(41.2%) 대비 4.6% 증가하여 증가폭 크게 축소
 - 철강은 글로벌 수요 증가와 기저효과로 수출물량은 증가(4.1%)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단가 조정으로 수출액은 5.6% 감소 전망
 - 정유는 석유제품의 수요 확대와 LNG 가격 급등으로 인한 대체 수요 확대 지속의 영향으로 15.3% 증가 전망
 - 석유화학은 글로벌 수요 확대, 국내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능력 증가로 수출물량과 수출액 각각 2.4%, 3.4% 증가 전망
 - 섬유는 글로벌 경기 성장세 지속에 따른 의류 및 의류용 소재, 산업용 섬유 수요의 확대와 단가 인상으로 2.9% 증가 전망

- 바이오헬스는 코로나19 백신 수주 증가, 주요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 의료기기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6.4% 증가 전망
- (IT산업군) 가전을 제외한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의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3.3% 증가가 예상되나, 전년(22.1%) 대비 증가폭은 크게 감소
 - 정보통신기기는 2021년에 이어 SSD, 휴대폰 부품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나 반도체 부품 수급 부족의 영향,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세는 둔화하여 전년 대비 2.5% 증가 전망
 - 가전은 주요 수출국의 경기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 특수 종료와 국내 업체의 해외 생산공장 정상화에 따른 국내 생산물량 감소로 6.8% 감소 전망
 - 반도체는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 생산능력 확대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여 역대 최대 수출 실적 경신 전망
 - 디스플레이는 LCD 감소 지속으로 수출 부진이 계속되겠지만, OLED 수요 증가 및 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1.7% 소폭 증가 전망
 - 이차전지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수요 확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세 유지

〈그림 1〉 2022년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가율 전망



주: 1) 달러 표시 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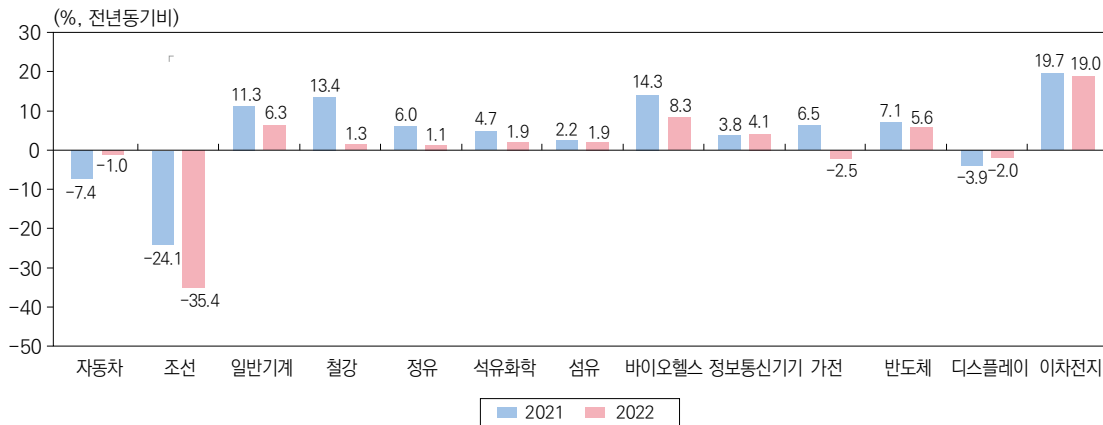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 내수는 대부분의 산업이 증가세를 유지하나 제한적 성장세 전망

- 수송기기(자동차, 조선), 가전, 디스플레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기계산업군) 일반기계는 수요산업 설비 확대로 증가세가 예상되나, 자동차와 조선은 수요 부족과 발주 감소로 감소세 지속
 - 2022년 자동차 내수는 자차 이용 수요 증가, 신규 수입차 출시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기 수요 기실현, 반도체 공급 부진 등의 제약 요인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 전망
 - 조선산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국내 선사의 발주가 크게 감소하여 큰 폭의 감소(-35.4%) 전망
 - 일반기계 내수는 정부의 SOC 투자 증가와 친환경 설비투자 확대, 수요산업 수출 증가로 6.3%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 전방산업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증가세가 전망되나, 전년 내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폭은 미미
 - 철강 내수는 건설 및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조선용 철강재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자동차, 가전의 생산 감소로 1.3% 소폭 증가 전망
 - 정유는 가정용, 상업용, 수송용 제품 수요가 내수를 견인하겠지만, 고유가 지속에 따른 수요 위축과 하반기 석유화학 수요 둔화로 1.1% 소폭 증가 전망
 - 석유화학은 코로나19 관련 제품 수요의 감소가 예상되나, 전방산업 생산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1.9% 증가 전망
 - 섬유산업은 민간소비, 수요산업 생산 확대,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전년 대비 1.9% 증가 예상
 - 바이오헬스는 코로나19 관련 백신 및 의약품 수요가 내수를 견인하여 전년 내수 급증의 기저 효과에도 불구하고 8.3% 증가 전망
- (IT산업군) 가전, 디스플레이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가 IT산업군 전체 내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반도체 부품 지연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5G 시장 확대,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 수요 증가로 4.1% 증가 전망
 - 가전 내수는 양호한 국내 수요 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특수에 따른 교체 수요 소진,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수요 감소, 소비축진 정책 완화로 전년 대비 2.5% 감소 전망

- 반도체 내수는 수요산업 생산기지 해외 이전의 감소 요인이 있지만, SSD 생산 확대로 전년 대비 5.6% 증가 전망
- 소재부품 중심인 디스플레이 내수는 2022년에도 국내 LCD 생산 위축 등으로 2.0% 감소 예상
- 이차전지 내수는 국내 전기차 출시 확대로 전년(19.7%)에 이어 큰 폭의 증가율(19.0%) 기록 전망

〈그림 2〉 2022년 주요 산업별 내수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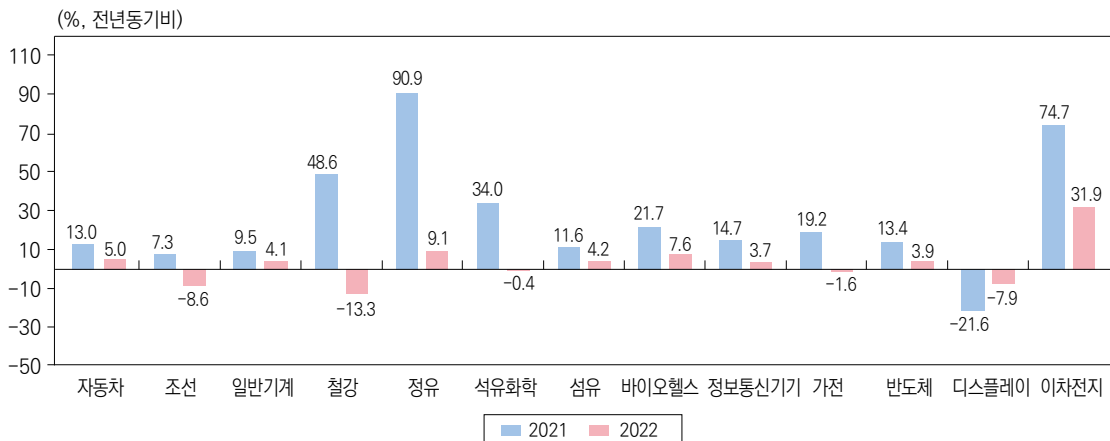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수입은 단가 조정 및 기저효과로 2.8% 소폭 증가 전망

- 2022년 13대 주력산업 수입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단가 하락 및 전년 큰 폭의 수입 증가(22.1%)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세 둔화 전망
- (기계산업군) 조선은 해외 인도량 및 기자재 수입이 감소하지만, 자동차와 일반기계 수입이 늘어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3.6% 증가 전망
 - 자동차 수입은 고급승용차 수요 증가와 수입차 AS 부품 및 첨단 부품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5.0% 증가
 - 조선은 해외로부터의 인도물량 및 국내 조선사 건조량 감소로 전년 대비 8.6% 감소 전망
 - 일반기계는 수요산업의 견조한 내수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4.1%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 수입단가 조정과 전년 큰 폭의 수입액 증가(39.7%)로 인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 소폭 증가 전망
 - 철강 수입물량은 중국 수출 재개 가능성으로 전년 대비 증가(2.0%)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철강 가격 조정에 따른 수입단가 인하로 수입액은 전년 대비 13.3% 큰 폭의 하락세 전망

- 정유 수입은 나프타 및 LPG 수요 증가 등으로 9.1% 증가세 유지
- 석유화학은 내수 호전으로 중간재 수입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하반기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이 예상되어 수입액은 전년 대비 0.4% 감소 전망
- 섬유는 해외 생산 중저가 의류 수입뿐만 아니라 장기간 억눌린 소비심리 회복이 고가품 의류 수입 확대에 이어져 전년 대비 4.2% 증가 전망
- 바이오헬스는 원부자재 수출 조정 등 공급망 리스크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 원부자재의 수입량 증가가 지속되어 7.6% 증가하며 전년의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
- (IT산업군) 가전과 디스플레이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내수 확대가 IT산업군 수입 증가를 견인하여 전년 대비 4.0% 증가
 - 정보통신기기는 신규 5G 휴대폰 및 휴대용 PC 출시,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제품 역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3.7% 증가 전망
 - 가전은 해외 생산 제품의 국내 역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과 해운 물류비용 부담으로 수입 제품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전년 대비 1.6% 감소 전망
 - 디스플레이는 재고관리용 LCD 재수입 물량 축소로 7.9% 감소하여 전년(-21.6%)에 이어 감소세 지속 전망
 - 이차전지는 가파른 내수 성장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물량 역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31.9% 증가

〈그림 3〉 2022년 주요 산업별 수입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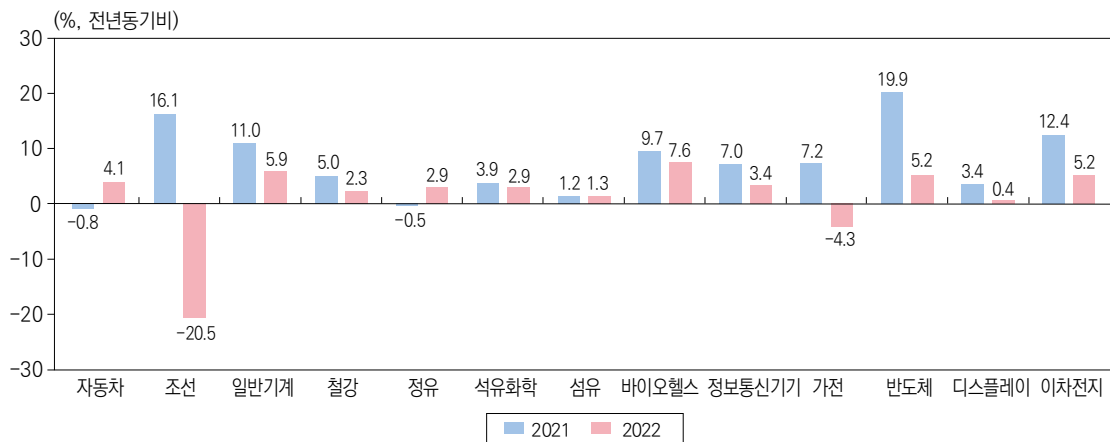
주: 1) 달러 표시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 **생산은 수출 및 내수 성장세 지속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하나, 증가폭은 다소 둔화 전망**

- 코로나19로 건조물량이 감소한 조선산업과 해외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 및 내수 확대에 증가세 전망
- (기계산업군) 자동차와 일반기계 생산은 수출 확대에 힘입어 증가가 예상되나, 조선은 2020년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수주절벽으로 큰 폭의 감소 전망
 - 자동차산업은 2022년에도 내수 감소와 반도체 공급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 증가와 신차 출시로 전년 대비 4.1% 증가 전망
 - 조선은 고부가·고기술 선박인 LNG 운반선과 화학제품 운반선의 인도량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수주 부족에 따른 건조 척수의 감소로 전년 대비 20.5%로 큰 폭 감소 전망
 - 일반기계 생산은 반도체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활성화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로 5.9%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 내수와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세로 증가 전망
 - 철강은 내수와 수출 동반 확대에 전년 대비 2.3% 증가
 - 정유는 항공유를 비롯한 수송용 석유제품 중심으로 내수와 수출이 증가하고 국내 정제설비 가동률이 상향 조정되어 2.9% 증가 전망
 - 석유화학은 내수 및 수출 확대가 지속되고 국내 신증설 생산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전년 대비 2.9% 증가 전망
 - 섬유는 글로벌 경쟁 심화, 해외 생산 제품의 수입 확대, 주52시간 근로의 중소기업 적용 본격화 등에도 불구하고, 내수 및 세계 수요의 확대에 따라 1.3% 증가 전망
 - 바이오헬스는 백신과 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위탁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진단키트 수요는 감소하여 전년 대비 7.6% 증가
- (IT산업군) 가전 생산은 수출 및 내수 위축으로 감소하지만,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의 생산은 수요 확대에 힘입어 증가 전망
 - 정보통신기기 생산은 기업용 SSD 수요와 5G 스마트폰 신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 증대로 3.4% 증가 전망
 - 가전 생산은 수출과 내수 모두 감소하고 해외 생산 정상화에 따른 국내 생산물량 축소로 전년 대비 4.3% 감소

- 반도체 생산은 지속적인 국내외 수요 증가와 이에 상응하는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 전망
- 디스플레이는 OLED, QD-OLE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LCD 생산의 감소 지속으로 0.4% 미증에 그칠 전망
- 이차전지 생산은 국내 생산설비 확충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 전망

〈그림 4〉 2022년 주요 산업별 생산 증가율 전망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표 1〉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56,039 (-14.5)	35,203 (47.7)	33,075 (2.7)	68,278 (21.8)	35,072 (-0.4)	37,455 (13.2)	72,527 (6.2)
조선	19,749 (-2.0)	11,869 (21.5)	10,484 (5.0)	22,353 (13.2)	10,080 (-15.1)	9,336 (-11.0)	19,416 (-13.1)
일반기계	47,886 (-8.9)	25,956 (9.0)	27,195 (13.0)	53,151 (11.0)	27,015 (4.1)	27,920 (2.7)	54,935 (3.4)
철강	26,557 (-14.5)	16,379 (27.0)	18,901 (38.3)	35,280 (32.8)	16,994 (3.8)	16,317 (-13.7)	33,311 (-5.6)
정유	24,167 (-40.6)	16,048 (26.9)	23,020 (99.8)	39,068 (61.7)	24,080 (50.1)	20,949 (-9.0)	45,030 (15.3)
석유화학	35,589 (-16.4)	25,941 (50.3)	29,025 (58.3)	54,966 (54.4)	29,884 (15.2)	25,830 (-11.0)	56,843 (3.4)
섬유	11,238 (-13.3)	6,125 (14.6)	6,280 (6.6)	12,405 (10.4)	6,350 (3.7)	6,417 (2.2)	12,767 (2.9)
바이오헬스	13,860 (55.3)	7,737 (29.4)	7,804 (-1.0)	15,541 (12.1)	8,124 (5.0)	8,416 (7.8)	16,539 (6.4)
정보통신기기	27,115 (17.2)	14,807 (16.8)	17,716 (22.7)	32,523 (19.9)	15,135 (2.2)	18,190 (2.7)	33,325 (2.5)
가전	6,989 (0.7)	4,090 (38.1)	4,430 (10.0)	8,520 (21.9)	3,882 (-5.1)	4,062 (-8.3)	7,944 (-6.8)
반도체	99,179 (5.6)	57,141 (21.9)	66,184 (26.5)	123,325 (24.3)	59,266 (3.7)	69,293 (4.7)	128,559 (4.2)
디스플레이	17,983 (-12.3)	9,202 (25.5)	11,504 (8.0)	20,706 (15.1)	9,036 (-1.8)	12,022 (4.5)	21,058 (1.7)
이차전지	7,510 (1.3)	4,312 (24.1)	4,409 (9.3)	8,721 (16.1)	4,580 (6.2)	4,705 (6.7)	9,285 (6.5)
13대 합계	393,861 (-7.6)	234,810 (27.0)	260,027 (24.4)	494,837 (25.6)	249,498 (6.3)	260,912 (0.3)	511,539 (3.4)
	<76.9>	<77.5>	<79.6>	<78.6>	<80.3>	<79.7>	<80.2>

주: 1) ()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은 전체 수출에서 13대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표 2〉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단위: %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 대)	1,879 (5.3)	902 (-3.0)	837 (-11.8)	1,739 (-7.4)	864 (-4.2)	858 (2.5)	1,722 (-1.0)
조선 (만 CGT)	294 (96.0)	138 (-2.8)	85 (-44.1)	223 (-24.1)	75 (-45.7)	69 (-18.8)	144 (-35.4)
일반기계 (십억 원)	102,810 (7.0)	60,824 (17.1)	53,604 (5.4)	114,427 (11.3)	65,250 (7.3)	56,406 (5.2)	121,656 (6.3)
철강 (천 톤)	48,956 (-8.0)	27,640 (10.6)	27,870 (16.3)	55,510 (13.4)	27,929 (1.0)	28,294 (1.5)	56,222 (1.3)
정유 (십만 배럴)	8,772 (-5.9)	4,550 (2.6)	4,746 (9.4)	9,296 (6.0)	4,614 (1.4)	4,786 (0.8)	9,401 (1.1)
석유화학 (백만 톤)	10,635 (-3.2)	5,834 (11.6)	5,365 (-0.8)	11,137 (4.7)	5,701 (-2.3)	5,644 (5.2)	11,345 (1.9)
섬유 (십억 원)	66,277 (-5.1)	32,789 (1.4)	34,956 (3.0)	67,745 (2.2)	33,541 (2.3)	35,511 (1.6)	69,052 (1.9)
바이오헬스 (십억 원)	38,217 (13.0)	20,210 (6.0)	23,463 (22.5)	43,673 (14.3)	23,253 (15.1)	24,039 (2.5)	47,292 (8.3)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49,798 (3.1)	27,009 (6.4)	24,671 (1.0)	51,680 (3.8)	27,786 (2.9)	26,035 (5.5)	53,821 (4.1)
가전 (십억 원)	28,146 (9.6)	14,971 (11.5)	15,015 (2.0)	29,986 (6.5)	14,669 (-2.0)	14,576 (-2.9)	29,245 (-2.5)
반도체 (십억 원)	60,757 (5.4)	30,792 (17.2)	34,278 (-0.6)	65,070 (7.1)	32,668 (6.1)	36,047 (5.2)	68,716 (5.6)
디스플레이 (십억 원)	38,876 (-2.4)	18,104 (-5.0)	19,272 (-2.8)	37,375 (-3.9)	17,419 (-3.8)	19,204 (-0.3)	36,623 (-2.0)
이차전지 (십억 원)	5,216 (35.5)	2,783 (-5.7)	3,459 (52.7)	6,224 (19.7)	3,376 (21.3)	4,031 (16.5)	7,408 (19.0)

주: 1) ()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표 3〉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18,596	10,794	10,219	21,014	11,028	11,033	22,061
	(7.3)	(30.3)	(-0.9)	(13.0)	(2.2)	(8.0)	(5.0)
조선	3,437	1,685	2,003	3,688	1,525	1,847	3,372
	(44.4)	(-4.6)	(19.9)	(7.3)	(-9.5)	(-7.8)	(-8.6)
일반기계	28,683	15,641	15,754	31,395	16,397	16,288	32,685
	(-0.2)	(13.4)	(5.8)	(9.5)	(4.8)	(3.4)	(4.1)
철강	16,295	10,627	13,590	24,217	10,652	10,343	20,995
	(-24.7)	(21.3)	(80.4)	(48.6)	(0.2)	(-23.9)	(-13.3)
정유	12,953	9,737	14,989	24,726	14,913	12,055	26,967
	(-26.1)	(30.2)	(173.9)	(90.9)	(53.2)	(-19.6)	(9.1)
석유화학	10,768	7,396	7,030	14,426	7,503	6,869	14,372
	(-15.1)	(42.5)	(26.0)	(34.0)	(1.4)	(-2.3)	(-0.4)
섬유	16,203	8,238	9,850	18,088	8,652	10,160	18,845
	(-5.3)	(12.6)	(10.9)	(11.6)	(5.0)	(3.1)	(4.2)
바이오헬스	16,156	8,865	10,804	19,669	10,384	10,772	21,155
	(6.8)	(12.8)	(30.3)	(21.7)	(17.1)	(-0.3)	(7.6)
정보통신기기	27,455	15,657	15,831	31,488	16,182	16,458	32,640
	(3.3)	(20.3)	(9.7)	(14.7)	(3.4)	(4.0)	(3.7)
가전	7,558	4,569	4,441	9,010	4,510	4,357	8,867
	(6.6)	(30.6)	(9.4)	(19.2)	(-1.3)	(-1.9)	(-1.6)
반도체	50,291	27,413	29,614	57,027	27,524	31,700	59,224
	(6.9)	(18.9)	(8.7)	(13.4)	(0.4)	(7.0)	(3.9)
디스플레이	3,308	1,311	1,284	2,595	1,203	1,188	2,391
	(-29.6)	(-30.4)	(-9.9)	(-21.6)	(-8.2)	(-7.5)	(-7.9)
이차전지	2,004	1,373	2,128	3,501	2,079	2,540	4,619
	(26.8)	(56.7)	(88.6)	(74.7)	(51.4)	(19.4)	(31.9)
13대 합계	213,707	123,306	137,537	260,844	132,552	135,610	268,193
	(-2.7)	(20.0)	(24.0)	(22.1)	(7.5)	(-1.4)	(2.8)
	<45.7>	<43.2>	<43.8>	<43.5>	<45.0>	<43.6>	<44.3>

주: 1) ()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은 전체 수입에서 13대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표 4〉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단위: %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연말	상반기	하반기	연말
자동차 (천 대)	3,507 (-11.2)	1,815 (11.5)	1,666 (-11.4)	3,480 (-0.8)	1,764 (-2.8)	1,858 (11.5)	3,622 (4.1)
조선 (만 CGT)	882 (-7.6)	633 (41.0)	391 (-9.7)	1,024 (16.1)	441 (-30.3)	373 (-4.6)	814 (-20.5)
일반기계 (십억 원)	125,472 (3.7)	72,632 (13.9)	66,701 (8.1)	139,334 (11.0)	77,620 (6.9)	69,943 (4.9)	147,563 (5.9)
철강 (천 톤)	70,155 (-4.6)	36,738 (5.8)	36,928 (4.2)	73,666 (5.0)	37,397 (1.8)	37,930 (2.7)	75,327 (2.3)
정유 (십만 배럴)	11,590 (-7.3)	5,612 (-4.9)	5,916 (4.0)	11,528 (-0.5)	5,830 (3.9)	6,032 (1.9)	11,861 (2.9)
석유화학 (백만 톤)	21,365 (-0.8)	10,864 (1.6)	11,338 (6.3)	22,202 (3.9)	11,418 (5.1)	11,429 (0.8)	22,847 (2.9)
섬유 (십억 원)	60,446 (-7.1)	30,428 (1.6)	30,772 (0.9)	61,200 (1.2)	30,865 (1.4)	31,150 (1.2)	62,015 (1.3)
바이오헬스 (십억 원)	35,508 (33.5)	18,919 (12.3)	20,029 (7.3)	38,947 (9.7)	20,623 (9.0)	21,297 (6.3)	41,920 (7.6)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49,396 (11.5)	26,059 (4.4)	26,773 (9.6)	52,832 (7.0)	26,569 (2.0)	28,049 (4.8)	54,618 (3.4)
가전 (십억 원)	27,460 (7.6)	14,436 (13.0)	15,001 (2.2)	29,437 (7.2)	13,939 (-3.4)	14,232 (-5.1)	28,171 (-4.3)
반도체 (십억 원)	118,440 (5.4)	64,825 (19.3)	77,142 (20.4)	141,967 (19.9)	69,568 (7.3)	79,843 (3.5)	149,411 (5.2)
디스플레이 (십억 원)	56,194 (-3.5)	26,929 (5.1)	31,171 (2.0)	58,100 (3.4)	26,525 (-1.5)	31,826 (2.1)	58,351 (0.4)
이차전지 (십억 원)	10,856 (12.1)	6,067 (15.9)	6,134 (9.2)	12,201 (12.4)	6,284 (3.6)	6,553 (6.8)	12,837 (5.2)

주: 1) ()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spark@kiet.re.kr | 044-287-3830